

서평

#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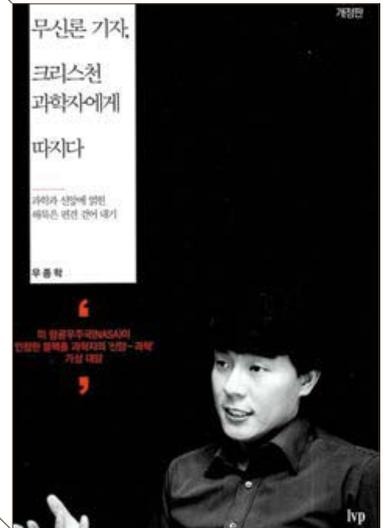
서평에 앞서, 복음과 지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종학 교수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기원 논쟁과 같은 피곤한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는 태도가 매우 존경스럽다. 필자도 대학원 시절 여러 해 동안 기원 논쟁에 관련한 공부를 하고 논쟁에 참여해 보았다. 상당히 피곤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참여하기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것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기도 하다. 기원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이나 학문의 차원이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이해해 온 삶의 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책의 전반적인 내용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에서는 기원 논쟁에 관련된 과학과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쉬운 문체로 잘 설명하고 있다. 2009년에 초판이 나왔고 5년만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장을 추가하여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진화 창조론(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 다루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깊이 고민한 흔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창조 신학



**문준호** KAIST 내에 위치한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에서 연구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물리학으로 이학박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A)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 총무를 거쳐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더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10p). 이 책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 창조과학, 진화론, 지적설계론 등에 대한 개괄, 유신론적 진화론(진화 창조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영안 교수님이 추천사에 쓰셨듯이, “존 폴킹혼이나 프랜시스 콜린스의 책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다. 특히 신앙과 과학, 또는 유신론과 과학에 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잘 풀이해 놓았다. 기원론에 대한 기본적 질문들과 갈릴레오 재판과 같은 역사적 상황,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과학의 다양한 측면이나 지적설계론의 논증에 대한 정확한 제시와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139-142, 167, 180, 186-188, 197, 200, 202p), 주로 기존 유신론적 진화론의 전형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론이 아닌 정형화되거나 미디어에 비취진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을 비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종종 발견된다. 또한, 기원 논쟁에 있어 진화론이 지니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고려가 약한 것

도 아쉬운 면이다(159-172p).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곳에 쓴 글이 있고<sup>1)</sup> 본 서평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론에 관심을 갖기 위한 입문서로서는 나쁘지 않은 책이다. 특히, 자연적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책의 통찰로부터,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3, 244p).

### 과학과 신앙의 접점에서

저자는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과학에 대한 낭만적 낙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현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학적 탐구와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172p), 과학이 종교와 인식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68p). 그러나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과학의 한계에 대해 비과학자들보다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의 전제와 방법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 또한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지니고 있는 극단적인 객관주의적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주관적인 세계를 창조한다.<sup>2)</sup> 물리학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로 파악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기 위해, 보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극단적인 주관성을 띄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론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며, 결론적으로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왜곡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인식의 변화를 극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원론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197p).

과학의 치명적 한계는 아주 오래 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물리법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그 물리법칙이 제시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열죽음(heat death), 즉 열역학적 종말이다. 현재의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래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연은 부패하고 사람은 사망하며 방사성 원소들은 분열되어 해체되는 대로 방치될 것인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는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의 미래 소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베드로 후서 3:4). 진화론적 진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지 못한다. 궁극적 미래에 관하여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것은 진화론적 진보가 아니라 신적 갱신이

다. 궁극적 미래에 대한 과학의 예측과 관련하여, 비지성적 맹신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 직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필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다. 죄와 부패,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현재의 물리법칙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창조는 과연 현재의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까? 물리법칙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물리법칙 자체는 영원히 또는 140억 년 동안 변함 없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수천 년 또는 수십만 년은 물리법칙이 현재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지되어 왔다고 역사와 관찰 사실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십 억 년도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수십 억 년이나 오래된 과거를 말하는 우주론과 같은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우주론과 천체과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마술적' 창조가 아니라(89, 243p) 현재의 물리법칙이 필요하며 140억 년이 필요할 것이다(152p).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과학자 그룹의 가정이 맞다는 확신이 지나쳐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으나 의견이 다르다고 비이성적,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필자도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엄밀한 광학적 설계를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물리법칙을 전제하고 이 일을 한다. 그렇지만 수십 억 년 전을 추론하는 역사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수십 억 년 이전을 말하는 우주론이나 천체과학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과학을 거부하는 것

은 아니다. 나는 과학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든지 또는 다른 무엇이든지, 수십억 년 이전이나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정말 사실과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 기원 논쟁에서의 자세

나는 정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류 과학자들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진정한 합리성과 지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원 논쟁에서 주류가 말하는 것, 다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다. 물론 근거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믿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 반대 극단도 문제이다. 내가 이런 문제를 길게 얘기하는 한 가지 이유는, 기원론의 문제는 단순히 주류 학문 권위자의 명성에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이다(151, 152p). 그러나 기원 논쟁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문적 권위를 등에 업고 사실상 내용은 부실한 주장과 강요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 기원론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창조과학을 주류로 해왔던 국내 기독교 내부의 기원론은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참조와 숙고를 통해 더욱 분발하고 견고한 이론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양성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다가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서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것은 신학을 포함한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와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문제는 기원론에 관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논쟁에서도 기원 논쟁과 비슷한 상황을 보곤 한다. 과학의 방향이 정직한 연구 결과와 건설적 토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헤게모니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반대 입장은 ‘주류’ 과학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이단적 주장으로 분류된다. 물론 과학에도 주류 패러다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친 주류 패러다임에 대한 강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원 논쟁에 있어서도, 창조론이 주류이든지 진화론이 주류이든지 마찬가지이다. 쉽지 않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썼다는 것이다. 기원 논쟁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한 번 들여다보고 싶다면, 특히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기 원한다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

1) 문준호, “기원 논쟁의 주요 문제”, 창조론오픈포럼 8권 1호 (2014. 2.), 101-107.

2)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56.